

【피해지역에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7월 5일 부터 7일에 걸쳐 내린 집중 호우 피해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카야마시는 이 재해로 대피자 수는 3,300명 이상, 주택 피해가 7,600호 이상, 기업피해 400사업소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도 스나가와 강의 제방 붕괴로 2,230호가 침수된 히라지마 지역에서는 침수 높이가 어른 어깨높이까지 올라갔었는데도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없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간 인명구조가 시작되고 대피소 운영이나 재해 쓰레기의 수집, 스나가와 강 등 토목설비의 응급복구, 피해증명서 교부등 당면한 응급복구, 생활 재건 지원의 실행의 결과 재해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현재 재해지역 전체로는 차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을 보면 아직 피해전의 일상과는 먼 상태이고 응급 복구부터 생활재건으로 피해자의 수요 변화에 맞춰 한 층 생활재건 지원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여러가지 공적지원의 신청에 필요한 피해증명서에 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직원 체재를 충실히 함으로 피해 조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월중 접수된 것은 교부를 벌써 90 퍼센트 넘게 끝냈습니다만, 10일 전후로 교부를 끝낼 수 있도록 열심히 사무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해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국가가 요청하는 각종 요금등의 감면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시 독자적으로도 감면 비율의 추가 등을 실시합니다.

**【7 월 ~ 내년 3 월】**

- 저소득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및 간호 보험료 전액 면제 **【시 독자적】**
- 마루위 침수의 보육료, 유치원 수업료 감면 비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해 기간을 6 개월에서 9 개월로 연장 **【시 독자적】**
- 취학원조의 실시 **【시 독자적】**

**【7 월 ~ 10 월】**

- 국민건강보험, 간호보험,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창구 부담을 전면면제
- 장애복지 서비스 이용자 부담을 전면면제 **【시 독자적】**

※모두 마루위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이 대상

또한 7 월 30 일까지 받은 총액 약 1 억 6 천만엔의 의연금에 대해 제 1 차 배분으로 인적 피해와 전과, 반과, 마루위 침수, 토사 등으로 인한 일부 파손 등의 주거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지급하고 피해의 크기에 따라, 지금까지 이러한 재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재해 위문금 제도를 수정해 의연금 지급 대상 피해자와 병행해 위문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은 8 월 10 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의연금 재해 위문금을 합쳐 건당 5 만엔 이상(피해 정도에 따라 5 만엔 에서 22 만엔)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한 달간과 이후 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재해위문금 (1.3 억엔) 、 주택 응급복구 (5 억엔) 、 재해 쓰레기의 처리 (15 억엔) 등의 생활 재건 지원에 25 억엔, 공공 시설 등의 복구에 약 55 억엔의 총액 약 80 억엔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추가안을 더해가면서

9 월 보정 예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을 제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후도 가능한 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